

< 학 습 지 도 안 >

2019 학년도 봄학기(10 주차) 5 월 4 일 백두반 남 일 교장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 한글날 제 573돌이 되는 해

단원 명(과)	백두반/졸업반 봄학기 수업 제 10주차			
	문법·관용표현·읽기와 쓰기 및 발표하기			
교재	조선시대 역사2·알쏭달쏭 헛갈리는 맞춤법 & 한국한자검정 6, 7급			
	한국문화/역사 100선·SAT한국어 문제(어휘력 & 읽기 강화)·시사관련 자료			
본시 지도 목표	말하기			
	듣기			
	읽기	漢字 공부를 통한 우리 문화 및 역사 쉼터		
	쓰기/숙제	한자 7급 & 우리말 빛내기		
	기타 활동	교내 작문대회 & 번역대회 시상식 도우미		
지도 내용		시간	평 가	
1교시	보조교사(10주차)		1시간	5월 반장 허슬
2교시	백두반 발표 연습-2 (강당)			
3교시 11:20 12:40	백두반 수업			
	1) 한국 역사 & 문화 (10주차)			
	2) 틀리기 쉬운 단어와 동사 활용 & 우리 말로 깨닫다			

안내 및 협조사항	
백두반 봄학기 일정	
1. 한국 음식 만들어 보기: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 ➔ 곧 음식 종류와 담당하실 분을 정해서 일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2. 졸업생 인터뷰 행사(11일 예정) ➔ 담당-김수경 선배 ➔ 인터뷰 내용은 Newspaper에 실을 예정입니다.	
3. 졸업생/수료생 발표 연습 및 사진촬영 일정 ➔ 다음 페이지의 일정 참조	

(지난 주 4월 27일) 출석/숙제/보조교사 시간 및 Point 합계

이름	김준영	이상재	이유진	최정완	허 솔	비고
출석	1	1	1	1	1	
출석(P)	6	5	6	5	6	
숙제	1	1	1	1	1	
숙제(P)	7	4	6	6	5	
TA	1	1	1	1	1	
TA(합)	15.5	16	20	14	15.5	
Project	-	-	-	-	-	
Project Total	10	5	10	10	15	

* 백두반 '19 졸업반의 보조교사 봉사 계획표/2019 봄학기				
	학생 이름	보조교사 시간	학급 이름	교실 번호
1	허은빈	10:30~11:20	봄반	RM 105
2	최정완	10:30~11:20	여름반	RM 107
3	이유진	10:30~11:20	가을 1 반	RM 142 OW
4	이상재	10:30~11:20	가을 2 반	RM 152 OW
5	김준영	10:30~11:20	겨울반	RM 143 OW

* 백두반 반장(Class Captain/Prefect) 리스트			
Month	NAME	Month	NAME
2018 년 9 월	이상재	2-3 월	이상재
10 월	이유진	4 월	이유진
11 월	허 솔	5 월	허 솔
12 월	김준영	6 월	김준영
2019 년 1-2 월	최정완	6 월	최정완

* 백두반 졸업 사진 촬영 일정 및 졸업생 발표연습 *			
졸업생/수료생 발표연습	5 월 4 일(2 차)	5 월 11 일(3 차)	5 월 18-25 일
졸업생 사진촬영 & 리허설 일정	5 월 11 일		
	5 월 18 일	최유민	
	5 월 25 일		최종 연습
	6 월 1 일	리허설	축하공연팀과 함께
	6 월 8 일	졸업식	9 시 30 분부터

(지난 주 숙제 Apr.27, 2019)

맛의 말, 말의 맛
'비빈밥' 과 '비빔밥' & '덧밥' 과 '덮밥'

Q1) 어떤 말이 옳을까요? ()

- 1) 비빈밥
- 2) 비빔밥
- 3) 비빌밥
- 4) 비비는밥

Q2) 어떤 말이 옳을까요? ()

- 1) 덧밥
- 2) 덮밥

해설: '비비다' 는 한국인의 밥상문화로는 아주 자연스런 행위

→ 넓고 오목한 숟가락을 사용하고 밥과 찌개, 반찬, 젓갈과 각종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 밥 위에 다른 종류의 음식을 얹어 먹는 식생활

Q3) 어떤 말이 옳을까요?

- 끓는 물 = 끓다 + 물 = 끓물(X) 끓는 물(O)
- 덮밥 = '덮은 밥' 으로 쓰지 않는다.
- 먹는 물 = 먹다 + 물 = 먹물(X) 먹는 물(O)
- 덧밥 = 덧찌우다(덮다의 의미를 가진다)
- 그러나...

덧밥=먹을 만큼 먹은 뒤에 더 먹는 밥

[우리말로 깨닫다] ‘버시’

제목이 의아하지요?

‘버시’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데 아니, 어쩌면 사라져 버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버시’는 ‘남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시버시**’가 부부를 가리키는 순 우리 말인데, 그 중에 ‘가시’가 부인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가시집’은 ‘처가집’을, ‘가시아버지’는 ‘장인’, ‘가시어머니’는 ‘장모’를 의미하는 말로 ‘시집,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대비되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시’는 따로 쓰이지는 않으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남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원적으로는 ‘벗’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어는 변화합니다. 언어는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자말을 쓰게 된 것이나, 서양어를 쓰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모두 다 없애 버리고,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어휘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외래어에도 중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한자말을 사용하여야 유식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비슷한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려운 말은 겸손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말에는 우리의 삶이 들어 있고, 느낌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정겹죠. 저는 좋은 우리말 어휘들이 있으면 살려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멘토(mentor)’를 우리말로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냐고 물어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몇 달을 고민한 끝에 ‘길스승’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내드렸습니다. ‘내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물은 이제서는 ‘길스승’이라는 단어가 참 좋다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들을 살려 쓰는 것도 좋은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단어들에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은 학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국어학자나 한글 운동가들이 많은 단어를 만들어 내고 찾아냈지만 생명력이 길지 않은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언어의 생명력은 일반 대중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길스승이나 버시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게 되기 바랍니다. 가시버시나 가시집, 가시어머니, 가시아버지도 모두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버시’는 ‘벗’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평생 가까운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사람에게 적당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좋은 벗이고 싶습니다. 좋은 ‘버시’가 되고 싶습니다.

경희대학교 조현용 교수

<순수 우리말/단어 공부>

- 1) 버시 = 남편 **가시버시**: 부부를 가리키는 순 우리 말
- 2) 가시 = 부인 가시집 = 처가집 가시아버지 = 장인
- 3) 가시어머니 = 장모 (시집,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대비되는 표현)
- 4) 버시: 따로 쓰이지는 않으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남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5) 버시: 벗*어원적으로는 ‘벗’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Learn Korean with stories
농부와 세 아들 (A farmer and three sons) :

열심히 일을 하던 농부가 그만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농부는 죽기 전에 세 아들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를 하였어요.

“아들들아, 내가 이젠 나이가 들어 얼마 살지를 못 하겠구나.”

“그래서 너희들에게 보물이 묻혀있는 곳을 알려 주려고 불렀단다.”

일하기 싫어하던 아들들은 농부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말씀하세요. 아버지. 어디에 보물이 묻혀 있나요?”

“포도밭에 많은 보물을 숨겨 놨단다.”

“찾아서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가지거라.”

“포도밭 어디쯤에 묻으셨어요?”

“하도 오래 전 일이라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구나.”

농부는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들은 농부가 죽자 서둘러 삽과 괄이를 들고 밭으로 나갔어요.

바로 아버지가 숨겨놓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너무나 넓은 밭이라서 아들들은 쉬지 않고 매일매일 밭을 팠어요.

그러나 보물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어요.

“헛, 아버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맞아, 도대체 이 넓디 넓은 밭 어디에 있는 거야?”

아들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틀림없이 어딘가 있을 거야.”

막내가 다시 밭을 파러 가자 형들도 보물을 뺏기기 싫어 다시 열심히 밭을 팠어요.

하지만 아무리 파도 보물은 나오지 않았답니다.

결국 아들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포기하고 말았어요.

여름이 다가오자 포도밭에는 크고 맛있는 포도가 아주 많이 열렸어요.

아들들이 쉬지 않고 열심히 밭을 팠기 때문이었어요.

그제서야 아들들은 아버지가 숨겨 둔 보물이 바로 열심히 땀을 흘려 얻는 포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 아들들은 사이좋게 포도밭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나이가 들다 : to get old
세상을 떠나다 : to die
-기 전에 : before (Verb)
부르다 + 모으다 => 불러 모으다 : to call some people to gather
이젠 : the short form of 이제는
보물 : treasure
-이/가 묻혀있다: to be buried
부르다 : to call
귀가 솔깃하다 : be tempting to hear
포도밭 : grape farm
숨겨 놓다 : to hide
놔단다 : is the short form of 놓았단다.
사이좋게 : peacefully
나누다 : to share
가지다 : to have
-거라 : a verb ending for commanding
묻다 : bury
하도 : too
삽 : shovel
괭이 : hoe
파다 : dig
보이질 : the short form for 보이지를
넓디 넓다 : so wide
불만 : complaint
이만저만이 아니다 : extremely, not a little
틀림없이 : surely
막내 : the youngest
원망하다 : blame
(과일이) 열리다 : (fruit) is hung on a tree.
그제서야 : a right word for this is 그제야; it means 'not until that' or 'only after that'.
가꾸다 : to grow, to cultivate

